

## 기가미 신사

에도 시대(1603~1867)에 오모리 마을이 번성하기 이전부터 이 지역을 지켜온 기가미 신사는 오모리의 정신적 지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옛 다이칸쇼(막부의 직할령을 관리하는 관청)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마을 동쪽 끝에 자리한 이 신사는 1577년 이 지역을 지배했던 모리 씨족이 마을과 주민들을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지금의 자리에 만든 것입니다. 1800년에 발생한 큰 화재로 신사를 포함한 오모리 마을의 대부분이 소실되었지만 신사는 12년 후에 다시 재건되었습니다. 현재의 건물은 이때 재건된 것으로 이리모야즈쿠리라는 팔작집 지붕의 건축 양식이 특징적이면서 중후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2층짜리 배전이 갖춰져 있습니다. 배전에 들어 서서 위를 바라보면 천장에 그려진 하늘을 나는 용의 모습에 매료될 것입니다. 1818년에 제작된 이 천장화는 '나키류(포효하는 용)'라고 불리는데 그림 바로 아래에서 손뼉을 치면 교묘하게 계산된 배전의 음향효과를 통해 손뼉 소리가 마치 용이 울부짖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나키류 주위에는 신사에 기부금을 낸 무사 가문의 문장이 그려져 있는데 이것 또한 매우 인상적입니다.